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설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온 가족이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예 배 순 서>

인도 : 가족 중 어른

목도	다함께
성시 시편 1편 1-3절	인도자
찬송 304장(통일 404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께)
성경봉독 이사야 43:1-7	인도자
메시지 "너는 내 것이라"	인도자
찬송 563장(통일 411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7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이었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온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동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흠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술작가들이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생명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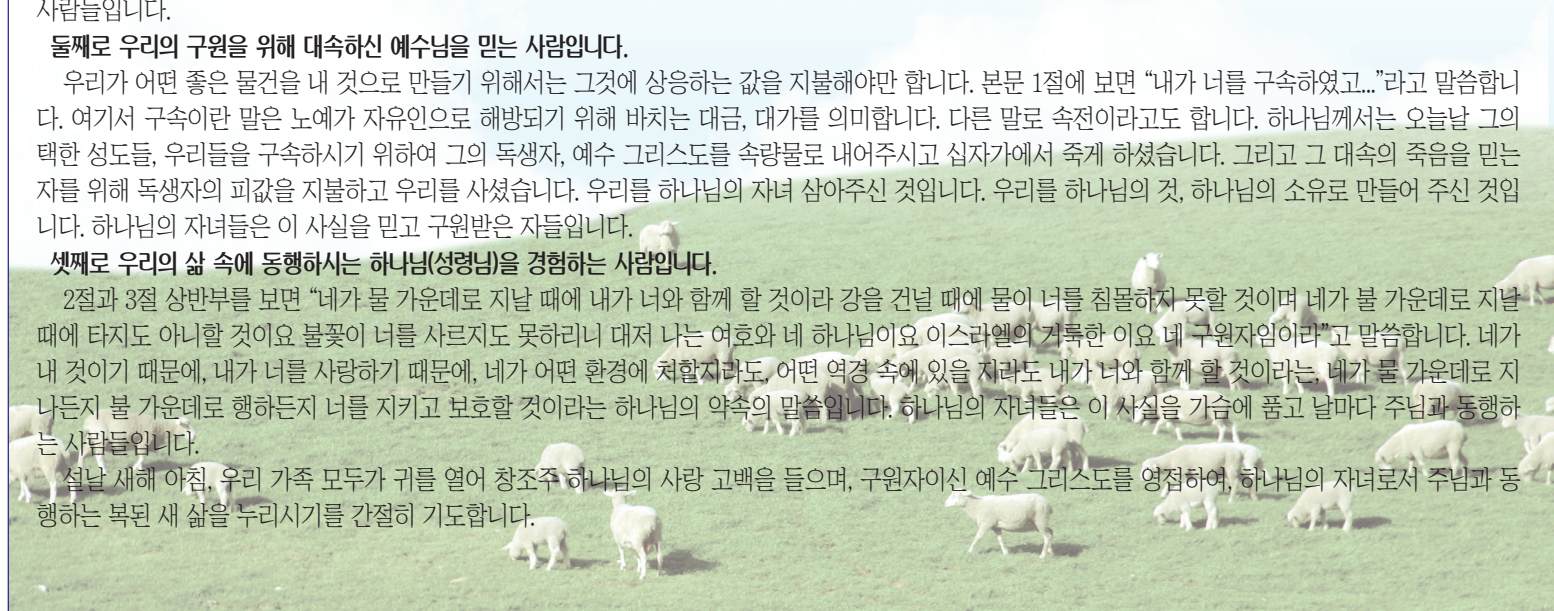
둘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노예가 자유인으로 해방되기 위해 바치는 대금, 대가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의 택한 성도들,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를 위해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 상반부를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이었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여경 속에 있을 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행하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날 새해 아침, 우리 가족 모두가 귀를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7학기 서울성경대학 ·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3월 2일(월)~5월 10일(주) / 10주간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 37학기

서울성경대학과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3월 2일(월) ~ 5월 10일(주일) (10주간) 다음과 같이 열린다. 각 과목당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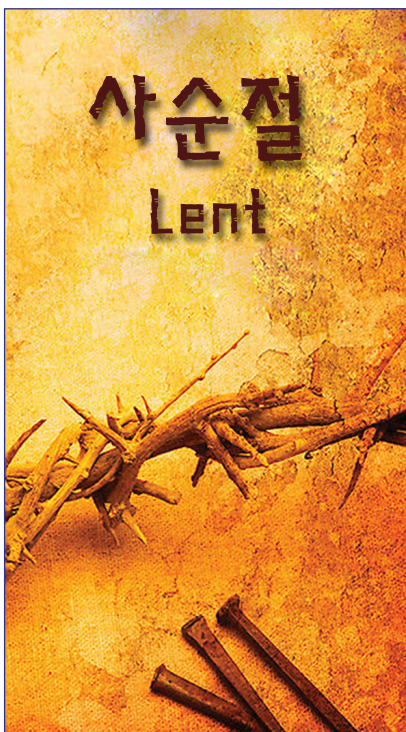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요한복음	목, 저녁 7:00~8:00	유문건 목사	602호
	갈라디아서	금, 오전 6:10~7:00	박영준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조원영 목사	501호	
선교대학	월, 저녁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10~4:30	배경애 전도사	506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30~3:00 (3/1~5/3)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 (3/15~4/12)	서준권 목사	609호
이·미용학교	월, 오전 10:00~12:00 (3/2~5/4)	배경애전도사	701호
수화교실 초급반(16주) 중급반(16주)	주일, 오후 1:00~1:50 (2/22~6/14)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30~12:30 (3/3~4/28)	양세라 목사	601호
영성 케어스쿨	화, 오후 1:30~3:30 (3/3~4/21)	양세라 목사	601호
영유아 아트&하트(art and heart) 스쿨	목, 오전 10:30~12:30 (3/5~5/7)	구본혜 전도사	706호
비블리온 바이블(Biblio Bible) 스쿨	토, 오전 10:00~12:00 (3/7~5/9)	양세라 목사	702호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유아·유치·유년·초등부 : 2월27일(금)~28일(토) / 서울교회
고등부 : 26일(목)~28일(토) / 아가페타운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7(금)~2.28(토)	서울교회	하나님, 저 왔어요!	박노철 목사 /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박노철 목사 / 양세라 목사
유년부			복음으로 사는 유년부	박노철 목사 / 고수은 전도사
초등부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박노철 목사 / 김안성 목사
고등부	2.26(목)~28(토)	아가페타운	복음을 통해 얻는 자유	박노철 목사 / 천세중 목사



올해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2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을 가리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참회(懺悔)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욱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본 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각종 축하행사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박노철 목사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특별새벽기도와 각 부서 겨울수련회, 그리고 노약자 심방 등등으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바쁜 일정이 마칠 무렵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좀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기 위해 평생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 가시 면류관, 모든 조롱과 멸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신 그분을 묵상하며 나의 묵화와 삶의 모든 방향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정조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여, 구하오니

우리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상징으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인권 개선이 통일의 시발점이다

“독일 통일은 동독 민주혁명의 기반에는 인권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서독의 동독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지원이 독일 통일의 바탕이 됐다”는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회장은 2014한독평화통일포럼에서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이 독일 통일의 교훈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0월 24일 전문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사례 체계적 수립 기록 보존 △북한인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등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북한인권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제도화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정보 접근권 보장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 △우리 정부의 인권외교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탈북 동포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 강화 △국제법상 난민지위 보장 방안 △국내 입국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탈북동포 여성과 제3국 국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 파악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2014년 11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되었고 이번 결의는 관례에 따라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것이다.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인권 결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와 함께 북한 정권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 두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서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그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국가관리 우선 논리를 주장했고 핵실험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인권이 심각하나 우리만은 자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내 가족 아니 내가 죄수가 되어 정치범수용소에서 매일 10시간 노동을 하며 최소 노동연령이 만6세인데다 죽을 때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그래도 자중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 교화소 생활이 힘들어서 바늘을 삼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까지 있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말려 죽이려 한다면서 그런 지옥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는 증언을 듣고 있지 않은가. 탈북한 뒤에 브로커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여인들이 부

지기수며, 중국인과 결혼하여 안정을 찾은 듯 했으나 북한 보위부는 예의를 두지 않고 색출하여 북으로 끌고가 혹독한 고문과 고난을 준다. 손바닥을 바닥에 펴게 한 후 쇠몽치로 마디마디를 때리고 소가죽 혁대로 내리쳐 죽더라도 혼자 죽자는 심정으로 아버지도 다 죽었다고 불지 말라는 아버지 말씀만 생각하며 참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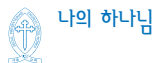
무엇이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북한인권이 개선되려면 북한 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판적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키워야 지 몽둥이로 때려서 고쳐질 일이 아니라며 우리는 좀 자중하자는 이들도 있다. 그래도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했고, 북한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수한다는 유엔결의만 제외한다면 북한인권 조사단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획기적 제안을 했다.

북한 당국은 자국 주민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치 못했으므로 국제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네바에서 올해 2월 17일 열린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의 최종 결과 보고서다.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계류시키고 있으니 정치지도자들은 역사의 죄인인가 민족의 배신자인가, 무엇이 애국이고 애족인지를 분별토록 해야 할 것이다. 험악한 독재자의 눈치만 보지 말고 위로 하나님을 보고 앞에 있는 내 형제의 아픔을 싸매줘야 하지 않겠나! 그 길이 한반도 자유·정의·평화 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2014년 12월 6일 한국장로신문에 실린 이종윤 원로 목사님의 순례자 칼럼 전문이다 (편집자 주)



내 고향 북한에 복음 들고 찾아갈 날을 기다립니다



박효진 집사 (디아스포라부)

말 '감사'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던 저는 북한에서 이루지 못한 작은 소망을 이루어 보고자 늦은 나이에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세종사이버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처음엔 비싼 등록금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포기할까 고민도 많았지만 디아스포라부 선생님들의 기도와 성원,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장학금으로 4년간

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당당히 대학졸업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은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훈훈한 마음으로 학업과 봉사,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우리 디아스포라부가 통일 조국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가장 선두에 설 일꾼들로 날로 부흥하고 있어 이 또한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부를 통해 수십 명, 수백 명의 통일 일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여리고 약하지만 때가 되면 빛이 없는 저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 들고 찾아갈 날이 곧 오리라는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통일 일꾼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주님의 복된 교회, 서울교회 성도님들

과 디아스포라부 공동체 식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활절기 시 공모

순례자 편집부에서 청·장년을 대상으로 사순절 묵상시, 종려주일시, 부활절시 각 1편씩을 공모합니다. 모집 마감은 3월 13일, 순례자 편집부나 yoolulu@hanmail.net로 보내시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2015 동계비전트립 보고

미얀마에 복음의 열매가 열리길..



김순영 권사 (3교구)

"미얀마를 그리스도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2월2일 부터 12일까지 모든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와 안전 속에서 승리하고 마칠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및 모든 성도들의 눈물어린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미얀마의 영혼을 위한 복음이 귀한 열매맺을 것을 소망합니다.

비전트립 단원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하나

님께서는 지혜와 섬김의 능력을 주셔서 변화된 미얀마 땅에 선교 사명으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역하는 교회마다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는 미얀마의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런지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서울교회를 통하여 미얀마의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고 성장할 것이라 확신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 미얀마의 크리스찬들이 험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큰 담력을 얻고 돌아올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척박한 미얀마 땅에 뿌려진 복음의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70인전도대

서울교회 전도대, 한 걸음, 한 생명, 전파합시다!

김순진 집사(13교구)

지난 2월 3일 아가페 타운에서 있었던 70인 전도대의 '영성 수련회'는 가슴 설레며 기다렸던 만큼 뜨겁고 성령 충만하여 기대 그 이상이었습니다.

늘 다락방 사역을 강조하시는 박노철 담임목사님은 작년에 다락방장들을 70인 전도대와 동행 실습토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도대원들이 얼마나 애쓰며 영혼을 구원하는지 알게 하여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 때 동행한 전도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저는 제 42기 전도학교를 수료하고 70인 전도대에 합류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생명축제 때는 2명의 전도 열매도 주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조원



으로 섬기다가 새해부터 조장을 맡게 된 저는 그래서 더욱 영성 수련회를 기다렸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천국 사신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충심으로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간 기도회 때는 70인 전도대원이 모두 일어나 동글게 둘러서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팀별로 맡겨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뜨겁게 하나 됨을 느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주소서."라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지역 복음화에 마음껏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교회 전도대!

한 걸음!
한 생명!
전 파 합시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부교역자 일동(1) 장석남(1) 황 광(0.5) 이현주(1) 김광욱,서영희(1) 김성호(1) 홍영선,오민조(0.5) 임광호,김정미(1) 차인화(1) 송재현,선순례(1) 기호진,염혜영(1) 13-16 다락방(0.5) (다음주 계속)

비전2020 후원자

안혜경(1) 김현관(1) 손재경(1) 김숙행(1) 나점균,최근자(1) 박미경5,노희균,노희수(1) 전시경(1) (다음주 계속)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이강일 0.5 신이사(범석) 0.5 김홍기/이새롬 1 예완식/송금자 0.5 임광호/김정미 1 함영미 0.5 김태수/김은희 1 유현주/이은미 1 양현주 1 기호진/염혜영 1 김금준 1 박찬희 1 안드레선교회 0.5 부교역자 1 하인선 1 (다음주 계속)

서울강남노회장로회 월례회 및 척사대회

2월21일(토) 오후 3시 701호

서울강남노회장로회 월례회 및 척사대회가 2월 21일(토) 오후 3시 701호에서 갖는다. 이 날 설교는 박노철 담임목사가 담당한다.

등 정

■ 이종윤원로목사는 16일(월) 한국CBM지도자 초청간담회를 갖는다.

■ 전화번호 변경 : 이영자권사(10교구) 593995515197

■ 주일식당봉사 : 마리아전도회(2.15) 뱀전도회(2.22)

■ 금주의 식사 제공 : 조봉환 권사 박길순 집사 가정 (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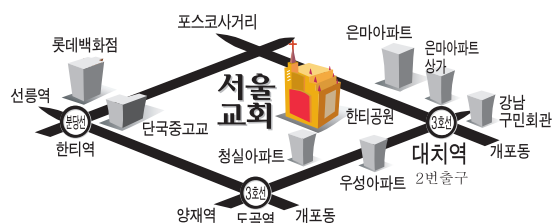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월 18일(수)부터 시작되는 시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영적 갱신의 절기가 되도록
- 오늘 토론토 소망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2월 20일(금) 귀국하시는 날까지 모든 일들을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시도록
- 고등부 겨울수련회와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